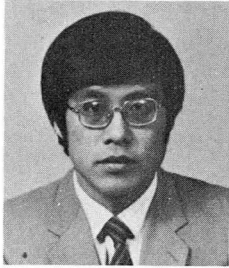


과잉공급과 소비둔화로 약세 전망



함 병 은
(본회 지도부 주임)

가. 전반기 양돈산업 동향

금년 전반기의 돼지 시세는 1/4분기에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2/4분기에는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런 이유는 전년 하반기 이후 돈가안정에 따른 사육두수가 증가한 반면, 노사분규 학생데모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출 및 육가공산업의 부진 그리고 쇠고기수입 등으로 돈육소비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금년 정부는 돼지사육농가 24만호에서 5백30만두를 사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은 수출물량 1만톤을 포함하여 47만6천톤으로 보았고, 1인당 돈육소비량은 11.0kg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전반기 공급측면은 '89년 3월 현재 총사육농가 수는 24만1천호로 작년 12월과 비교해서는 7.7%(2만호),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14.2%(4만호)가 줄었다. 또 사육두수는 4백93만2천두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65만8천두(15.4%)가 더 사육되고 있으나, 정부의 예상두수보다는 37만두 정도 덜 사육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출하될 2월령 미만의 사육두수가 3개 월전과 비교해서 18.9%, 전년 동기보다 12%가 증가된

수치로서 최대한 소비증가를 10%로 보아도 하반기 돈가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년도 돈가에 영향을 줄 모돈수는 77만1천두로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만3천두(13.6%)가 늘어나 현상태로 계속 증가한다면 내년도 양돈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상반기 월별 도축두수는 1월 71만8천두, 2월 61만4천두, 3월 72만2천두, 4월 69만두로 총도축두수가 2백74만4천두이며, 전년 같은 기간의 2백33만5천두보다 40만9천두(17.5%)가 증가되었다.

한편, 서울3개 도매시장의 1월부터 5월까지의 총공급두수는 95만6천두로 월별로는 1월 19만6천두, 2월 16만2천두, 3월 19만8천두, 4월 18만8천두, 5월 21만2천두이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4만4천두(17.7%)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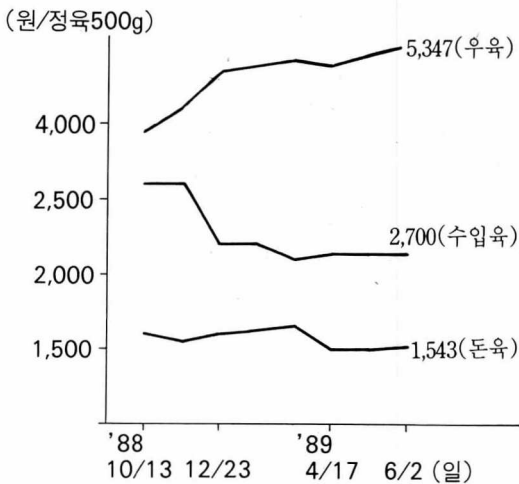
돼지값 동향은 금년 1~5월의 비육돈 산지 평균가격이 10만2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0만9천원보다 7천원(6.4%)이 내렸다. 이것은 정부의 예상가격 11만1천원보다는 8천원(7.8%)이 하락되었으며, 월별로는 1월 11만2천원, 2월 10만6천원, 3월은 9만9천원, 4월은 9만8천원, 5월은 9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돈가격은 1월 3만4천원, 2월 3만3천원, 3월 3만원, 4월 2만7천원 그리고 5월이 2만6천원으로 5월까지의 평균가격이 3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천원 정도가 상승된 것이다.

한편, 서울3개 도매시장의 지육 평균가격은 1,75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155원(8.1%)이 하락되었으며, 월별로는 1월이 1,910원으로 최고시세를 보였으나 2월 1,776원, 3월 1,742원, 4월 1,714원, 5월 1,640원으로 2월 이후 200원 정도 하락된 가격을 보이다가 4월 중순부터는 더욱 하락된 가격이 형성되었다.

대일 돈육수출실적은 5월말 현재 2천9백98톤으로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10톤보다 9백88톤(49.2%)이 증가되었고, 월별로는 1월 3백26톤, 2월 4백33톤, 3월 6백20톤, 4월 8백8톤, 5월 8백11톤이 수출되었다.

한편, 수입쇠고기 저가판매는 돈육소비를 침식시킴

으로써 돈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9년 5월 26일 현재 수입쇠고기 판매실적은 1만8천9백80톤으로 이중 고급육이 4천1백90톤, 일반육이 1만4천7백90톤이 판매되었고 가격은 중등품 기준으로 2,700원(정육 500g)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그림1>에서 보면 수입쇠고기 가격은 계속 하락한 반면, 한우가격은 상승되고 있다. 또한 그 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돼지고기 가격과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1>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한우고기의 가격비교

다시말해, 수입쇠고기는 원래 한우가격상승억제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그 효력은 반대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돼지고기 가격을 하락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쇠고기는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나. 하반기 양돈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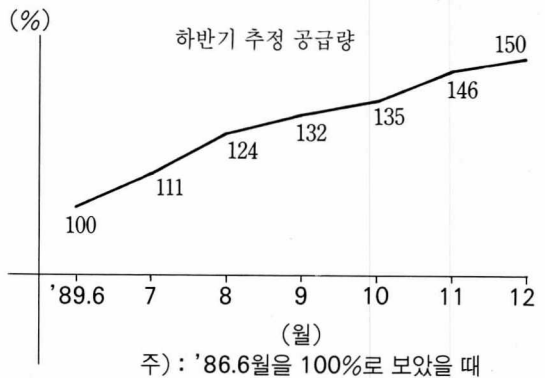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작년 이후 돈가안정에 따라 두수가 증가되었고, 특히 금년 5~6월의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돼지의 입식두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금년 하반기에 출하될 '89년 3월 현재 2월령 미만의

돼지두수가 전년 동기보다 12% 늘어났고, '89년 4월말 현재 사료생산량중 젓돈사료생산량이 전년 동기보다 5.2%가 늘어났다. 모돈수도 작년 9월 이후 금년 3월 까지 7만6천마리가 늘었으며, 출하체중도 90kg에서 94kg으로 4kg(월 4만두 증산 효과)이 증가된 것을 종합하여 보면 하반기 공급량은 예상보다 훨씬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하반기는 더위와 과일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계절이고, 특히 수입쇠고기 판매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육가공 및 수출산업의 부진 등으로 소비는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과일공급과 소비둔화로 하반기 돼지가격은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이며, '89년 6월의 공급량을 100으로 볼 때 9월은 132, 12월은 150으로 연말에는 현재보다 무려 절반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돼지가격도 '89년 3월을 100으로 보면 6월은 97, 9월은 83, 12월은 90으로 11월까지의 약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2> 하반기 돼지고기 추정 공급량

따라서, 양축농가는 불량모돈을 과감히 도태하고 출하체중을 줄여 스스로 모돈감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입쇠고기 저가판매의 전면중단과 수매·비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돈협회에서는 전양돈인들의 모돈감축운동 일환으로 비육돈 15두당 모돈 1두를 감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